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모두 백부장같이 주가 말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절대 믿음’을 가져라.
2. 신앙의 중풍병자들은 신앙이 100% 온전하지 못하고, 정상으로 행하지 못하는 마비된 자들이다.
3.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신부들에게 “너희는 저마다 백부장 같든지 중풍병자 같은 자들이니, 해당되는 대로 행하라.” 라고 주신 말씀이다.
4. <주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자기로 인해 아픈 자를 살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5. 소문을 듣고 편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유대인이 보는 그릇된 관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행한 대로 믿고 받아들였다.
6. 그릇된 인식관과 사고는 자기 자신도 죄인을 만들고, 타인도 구원을 못 시킨다.
7. 기도를 해서 ‘자기 자신의 사고와 생각’이 그릇되게 흐르지 않게 하여라.
8. 조금 하지 말고, 많이 행해야 많이 얻게 된다.

9. 백부장은 100% 행했다.

10. 지금 우리도 백부장같이 주를 절대 믿고 행하여 괴로움을 받는 자들을 살려 줘야 된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괴로움과 안타까움이 계속된다.

11. 섭리사 안에서도 신앙의 중풍병자같이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행실이 마비된 자들을 모두 보고하여 주가 고쳐 주게 하자.

12.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니, 이 기회의 때에 주를 절대 믿고, 부지런히 계속 행해야 된다.

13. 중풍병자같이 각종 어려움과 문제로 고통을 받는 자들을 그냥 두지 말고 주께 보고하여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어라.

14. 보고를 안 해 주면, 자기의 고통도 계속된다.

15. 주를 절대 믿고 행하는 자만이 문제가 해결된다.

16. 성령과 주가 행할 때, 속히 하여라.

17. 우울증이 있는 자들이나, 악평을 접한 자들이나, 각종 삶의 고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자들은 사망의 그늘에서 홀로 사탄과 귀신들이 주는 고통을 받고 있으니, 부지런히 생명들을 살피서 이끌어 내어 주어라. 행하는 자에게 성령과 주가 같이 행해 주신

다. 행하지 않으면, 자기도 마비되어 있는 중풍병자와 같다.